

가슴에 태극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가대표란 한 나라를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의미한다. 세계를 상대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라의 얼굴과 같다. 그러므로 본인의 태도와 행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장 안팎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과 행실에 관해 학교폭력 논란과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수들이 국가대표답게 행동하지 않는데 과연 국위선양을 위해 경기를 치르는 것이 맞는가 싶다.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 1조에 ‘국위선양’ 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한다는 발상이 구시대적인데 국가대표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4면에서는 국가대표의 의미와 국위선양 그리고 국가대표 답지 않은 국가대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권규태 기자 202220003@m365.knsu.ac.kr

무엇을 위해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나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 온 체육학과뿐만 아니라 체육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우들 중 대다수는 국가대표를 꿈꿨을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를 대표하여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기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남성유도선수 기준으로, 16세 이하 유도선수는 1,052명, 17세~19세 이하는 979명, 일반부는 948명(대학부, 일반부, 직장운동부 합계)이다. 대한유도회에 등록된 남성 유도 국가대표팀 선수는 체급당 단 2~3명 총 18명이다. 16세 이하 선수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93%고, 19세 이하 선수가 일반부 선수가 될 확률은 약 81%이다. 일반부 유도선수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서는 체급을 불문하더라도 상위 약 1% 안에 들어야 한다. 그만큼 국가대표의 장벽은 높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동경하는 국가대표의 모습은 어떨까?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 경기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함께 B조에 배정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대표팀보다 약했기 때문에, 조 상위 2팀이 진출하는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대다수의 언론이 전망했다. 하지만 호주와의 1차전에서 졸전 끝에 패하고 만다. 패배보다 뼈아팠던 점은 대표팀 외야수 강백호가 중요한 순간 ‘세레머니 도중 아웃’을 당하며 국가대표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것이다. 리그에서도 저지르면 안 되는 안일한 행동을 국제무대에서 보여주었다. 속적 일본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선취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에 큰 점수 차로 뒤지기 시작하며 투지를 잃고 힘없는 게임을 이어갔다. 결국 겨우 콜드게임을 면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어진 3, 4차전에 체코와 중국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호주에 밀리며 조 3위로 예선 탈락했다. 이러한 야구대표팀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번 WBC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8회에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태도를 보여주며 대량 실점에 이은 패배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이어, 또다시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것이다.

나, 종목, 시장을 위한 책임감

이전에는 당연히 되었던 투지와 열정이 언젠가부터 논란거리로 바뀌었다. 국가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가지는 마음가짐과 경기력은 언제부터 변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윤영길 교수의 질문을 구했다.

윤영길 교수는 과거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적인 가치보다 선수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시대라고 설명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밴쿠버 올림픽까지만 해도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자산이었다. 하지만 2012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본인만 좋다.’는 프레임이 대두됨과 동시에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갔다. 국가 모두의 소득이었던 금메달이 이제는 개인의 성취가 돼버린거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올림픽 메달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며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시대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가난한 상태에서도 잘 살아 보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30년 정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현재 30대 초반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았다. 절대적인 결핍이나 궁핍한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 이전 세대는 궁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했다. 이전 세대들은 ‘힘들어도 끝까지’라는 사명감으로 살아왔다. 형제들을 대표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일반 국민들과 선수 모두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과거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선수들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윤 교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국가대표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강백호 선수를 언급했다. “강백호는 개인의 성격 자체가 개인을 과시하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 드러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 평가가 야구 전체, 스포츠 전체의 평가로 연결된다는 ‘공직 책임감’을 발달시키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본인의 종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야구인이 아닌 야구 선수로 매몰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 본인 행동의 파급효과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 운동만 잘하면 돈 벌고 유명하고 하니까 간절함도, 공적 채무감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무감 또한 상당히 약화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야구 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며 스포츠에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호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인터뷰를 해주신 윤영길 교수. 안양FC에서 심리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좌)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정짓고 포효하는 박상영 선수 (우) WBC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세레머니 중 어이없는 아웃을 당하는 강백호 선수

면제로이드

‘면제로이드’란 ‘병역면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합성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근력을 대폭 강화해 주고 체력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효과를 지닌 약물이다. 당연히게도 스포츠계에서는 불법이다. 쉽게 말해 ‘면제로이드’는 병역면제가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독려 되어 신체능력을 향상해준다는 오지 못할 일종의 밈(meme)이다.

병역특례는 1973년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1949년 징병제 도입 이래 병역 자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1960년대 후반을 거치며 병역 자원의 잉여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잉여 병역 자원의 관리 능력이 부재했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공직 진출, 취업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병역특례가 바로 그 대책이었다. 병역특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하는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기준으로 한다.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당시 대

표팀에 선발된 오지환(LG트윈스)은 국내에서 큰 이슈였다. 대표팀에는 오지환과 같은 포지션에 더 좋은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있어서 대표팀 선발이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상무 야구단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나이 제한으로 상무에 입단하지 못하고, 커리어 중간에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다. 이는 곧 아시안게임을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대회가 아닌 병역 면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

니냐는 파문이 일었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선 양정모 선수, 양정모 선수는 대한민국 광복 후 참가한 올림픽 경기로는 첫 금메달리스트이자 병역특례 첫 수혜자다. 사진 출처: 대한체육회

‘공룡’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 법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빠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영길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내세울 것이 없었던 때는 국위선양과 메달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 것보다, PL에서 득점왕을 하는 것,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것, 대한민국 국적의 영화감독이 오스카상을 받는 등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알리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김연아 이후 소위 ‘두유노 클럽(Do you know Club, 국가의 이름을 알리고 화

제가 된 사람들을 칭하는 일종의 인터넷 밈(Meam)’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졌고, 그 자리를 메이저리거, PL 등 유럽축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예술계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가대표의 입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국가대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더욱 행실을 주의하여 국민과 타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 스포츠와 국민들에게 욕보이지 않아야 한다.

국가대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기다.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

들을 양성하고 국위선양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대학교 역시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 메달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와 관련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윤영길 교수는 인터뷰 중 공룡의 멸종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공룡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다. 올림픽 금메달은 과거를 지배했던 공룡과 같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올림픽 메달은 과거만큼 큰 위상과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올림픽 메달을 만들어 내는 학교에서 전체적인 스포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공룡이 되어서는 안 된다.